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주상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24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11월 15일 금요일	Issue No.	1724
		Date	Jan. '3, 1969: Fri.

금년의 미국경제. 인후레이숀 대책이 큰 과제. 오-칸 경제자문위원장의 견해

(와싱튼 1월24일발, 에이 피) 비에트남 전쟁에 의한 미국경제에 인후레이숀은 드디어 존슨정권에 의해서 해결이 못되고, 닉슨집권운동장후의 금년에도 계속 미국경제의 최대의 문제의 하나가 될것이다. 대통령자문기관위원회의 오-칸위원장은 금년도의 예측에대해서 "미국경제에 가장 행복스런 해가온다코하드라도, 그것은 1969년은 아닐것이다" 라고 비관적이다.

오-칸위원장은 금년의 미국경제의 경향을 상반기는 경제활동이 존슨정권의 "축소정책"의 효과로 조금 완만하게 되어 인후레이숀의 속도가 늦는데, 후반에는 또 활발해져서 인후레이숀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이견해는 정부의 경제담당자, 경제전문가, 재계수뇌에도 공통되고있다.

1968년도의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전년의 7월9백억불을 5%나 넘어 8천6백억불에 도달할것으로보고있는데, 이 성장율은 현재의 미국경제에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것이 정부의 생각으로 오-칸위원장은 1969년의 국민총생산은 1% 내지 3%에 억제하고싶은 생각이다.

물가는 한국전쟁이래의 상승을 계속하고있으며, 작년정부는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체에 두번이나 사사웠다. 철강과 자동차의 가격인상문제가 그것으로, 베르데렘, 스틸과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가격인상을 내렸다.

+ 퍼-센트 부가세의 문제

그러나 물가의제조로서 정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것은 10%의 부가세인셈이었다. 닉슨차기 대통령은 선거운동중 "당선하면 10% 부가세를 철폐한다" 라고 언명하였는데, 닉슨씨는 대통령 취임후, 10% 부가세가 기한이 닮나는 6월30일이후, 세율을 내리고 부가세를 계속할 요청을 할 공산이 크다고한다. 10%의 부가세는 소비자의 수요를 직시에, 극적으로 늘리고 생산이 삭감되고 실업자가 늘고, 인후레이숀 경향이 늘것으로 기대되었는데, 과연 결과를보면 예상된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일부의 비평가는 "원만한 실패"로 말하고있다. 그러나 부가세는 예정보다 좀 늦어, 1969년 후반이나 되여 처음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퍼설상래의 미국경제가 1969년 가을부터 점점 냉각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비에트남 전쟁과의 관계

비에트남전쟁이 1969년중에 종결한다고 예측하는 사람은 적은데, 전투가 축소되고, 전쟁비용이 삭감되는것은 거의 확실시되고있다. 비에트남전쟁의 미국경제에의 압력은 다소 가벼워질것이다. 이것은 미국경제에 밝은 빛을 주는것이다. (제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닉슨정권의 큰 문제는 미국민간에 "더 오래다리면 더 물가가 올라갈것이니, 지금 사 주자" 라는 "인플레이션" 심리가 퍼지고있는것이다. 이경향은 특히 주택의 구매에 있어서 현저하고, 가령 만은 이자를 내드라도, 지금 돈을 빌리서 집을 빌려는 사람이 점점 늘고있다. 1969년에는 건설이 시작되는 주택의 수는 68년을 8% 내지 10%가 더 초과할것으로 보고있다.

오끼나와 시정권 반환문제는 금년에 해결

(동경 12월1일밤, 에이 피) 사또일본수상은 친년에 기자회견을하고, 오끼나와문제해결과 대략 분쟁문제등에 관해서 말하였다. 또 외교문제에서는 금년의 최대과제인 오끼나와문제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나는 금년 가을에 미국을 방문하여 오끼나와의 시정권반환에 대해서 절정을 지을 생각이다. 미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오끼나와의 미군기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미국방문시까지 어느정도 일본-미국양국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둘 필요가있으며,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있다. 오끼나와 미군기지가 일본을 포함한 극동의 안전에 주고있는 역할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있으며, 오끼나와의 시정권은 반환되었지만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하면, 이것은 나로서는 생각할수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올단을 공격 증동 또 긴장

(뉴욕 12월30일밤, 에이 피) 이스라엘의 육벌대가 28일밤 헤리쿨러로 메바논의 베이루트공항을 습격한 사건을 도의하기 위해, 국련의 긴급안보리사회는 29일 열렸다.

미국정부도 이스라엘을 비난

미국은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강한 태도를 표시하고있으며, 워싱턴에서는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공항 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 미국은 국련이 이스라엘 비난의 조치를 속히 취할것을 지지한다" 라고 말하였다. 기라의 과극대표자들도 차례차례로 이스라엘을 비난하였다.

안보리사회에서 비난결의를 채택

안보리사회에서는 이날밤 일단 휴회하였는데, 동일중에 이스라엘 비난결의를 채택할것으로 보고있다. 이스라엘측은 "베이루트공항공격은 지난 26일 이람의 아레네공항에서 애람의 폭력단이 이스라엘 항공여객기를 총격한것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라고 설명하고있다.

애람수뇌회담을 제창

(안만 12월30일밤, 에이 피) 올단의 후세인국왕은 29일밤, 이스라엘 들적대의 베이루트 공항 습격사건에 대해서 전국에향해 레이디오방송을하고,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조금씩 애람수뇌회담을 열것을 제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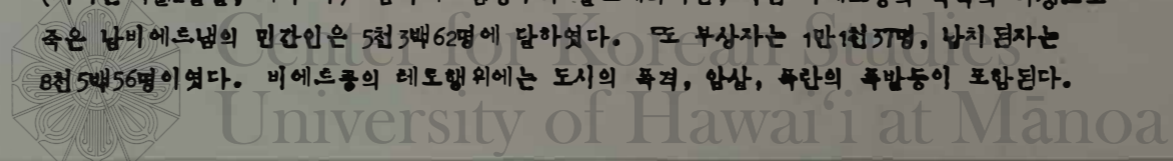
이스라엘기가 올단을 폭격

(델라비부 1월2일밤, 에이 피) 이스라엘군대변인은 2일, 이스라엘공군기가 동일 이스라엘군 지상부대에 포격을 가하고있는 올단의 포병진지를 폭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동대변인은 이스라엘육군이 일일밤 가리레 호남방에서 이스라엘영내에 침입하려는 올단의 유격대를 격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비에트콩 폭행 희생자 다수

(사이공 1월2일밤, 에이 피) 남비에트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비에트콩의 폭력의 희생으로 죽은 남비에트남의 민간인은 5천3백62명에 달하였다. 또 부상자는 1만1천37명, 납치된자는 8천5백56명이였다. 비에트콩의 레도행위에는 도시의 폭격, 암살, 폭란의 폭발등이 포함된다.



중공의 핵실험은 수소폭탄인가 ?

(동경 12월28일 밤, 에이 피) 중공이 27일 아침 행한 제8회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지금 규모가 3메가톤이라는 것, 대기권내폭발이라는 것 이외에 상세한 보도는 없다. 그러나 규모의 점으로 보면, 제6회 실험 (1967년 6월 17일)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공중우하에 의한 중국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동시의 미원자력 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방사능 집의 분석으로 플루토늄 239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우란 235와 열핵재료를 쓴 소위 "7개 깃털 수소폭탄"이라고 한다. 이후의 제7회 실험 (동년 12월 24일)은 규모는 20키로톤이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발표가 없고, 서측과 중공측의 관측으로는 수소폭탄의 실패인가, 또는 불축의 핵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의 최근의 핵실험의 내용으로 보면, 중공은 수소폭탄의 소형화와 미실험의 실패를 위한 운반수단의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것에 들입은 없다.

일본측 항의 중공을 비난

중공의 핵실험에 대해서, 일본의 정부, 여당, 야당은 항의, 중공을 비난하고, 이러한 실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호노룰루 신시장 화씨씨 취임

(호노룰루 1월 2일 밤) 오늘 우렙크. 화씨씨는 다년간의 원을 풀고 오전 11시 반 호노룰루의 신시장으로서의 선서 취임식을 하였다. 마우모도 주최코재판소배심석판사의 사회로 거행되며, 시정부최고의 위치에 취임하였다. 시청사 중간마당의 시장에는 흥백의 막이 쳐져 있었다. 14개년 동안 계속된 부테이즈델시장의 공회당의 천하에 종지부가 짓히고, 새로운 민주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교체의 시기이다. 선서식에 앞서, 토이얌. 하와 이안. 밴드가 1시부터 연주를 시작하고, 에이브라함. 아카카목사, 본파본원사총장 이마무라사와 몬씨구노아. 우랜시스. 말젠사의 3자가 축도를 올린다. 화씨시장의 선서 취임식에 이어, 순회법정 도리관사예의해 시회의원과 시정부 각료의 취임식이 있었다. 오후 8시 반의 취임식의 연설을 하였다. 내일 오후 8시 반으로부터 호노룰루 국제 센터에서 화씨 신시장을 주빈으로 해서 부도회가 개최되어 취임식 축하행사가 갖나게 된다.

존슨 주일대사를 국무차관에 임명

(동경 12월 28일 밤, 에이 피) 미국대사관으로부터 28일 오전 외무성에 들어온 연락에 의하면, 존슨 주일미국대사는 본국으로부터의 귀국명령으로 29일 오후 3시 반 동경을 떠나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의 이유와 미국에 언제까지 체재하는가 등은 일체 명백히 하지 않았는데, 일본 외무성측에서는 존슨대사가 미정부내에서 국동의 정세에 자세한 외교관으로서 높이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닉슨 차기대통령하에서 국무차관으로 임명 되지 않나 보고 있다.

파리 회담을 각관시. 번스 미차석대표단

(파리 12월 28일 밤, 에이 피) 실시 귀국하고 있던 파리 회담의 번스 미차석대표는 27일 밤 파리에 귀입하였다. 번스차석대표는, 일주일 전부터 미국에 귀국하고 있었는데, 그간 존슨대통령을 위시하여 차기정권의 모퉁동 정계의 수뇌와 회담하였다. 번스씨는 파리 공항에서 "이 수일내에 파리 회담은 진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